

#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중국의 양계산업이 현실로



박람회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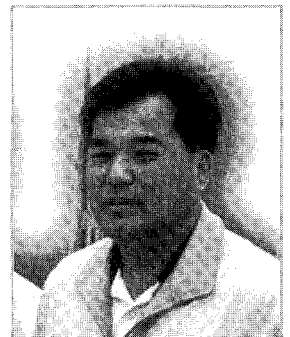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중국상해에서 열린 국제 축산박람회를 참관하게 되었다. 물론 국내 여행사와 대한양계협회를 통해서 이뤄진 이번 여행은 중국의 상해박람회 참관과 장가계 지역을 돌아보는 5박 6일 간의 일정 이었다.

동행 인원은 40명으로 1팀과 2팀으로 구분하여 여행이 실시되었으며 금번 여행의 목적이 박람회 참관을 계기로 중국의 양계산업의 현황과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체험 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중국을 처음 여행하는 것으로서 무척이나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여행길에 올랐다.

필자를 포함하여 1팀에 소속된 인원은 모두 22명으로 육계관련 사육, 유통, 외식, 종계, 사양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있는 실무자들이 대부분 이었고 일부 업체와 가족단위의 참가자는 물론 양계협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으로 2명의 팀장(경영지도, 검정)도 합류하여 동행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위주로 되어 있어 박람회 참가의 목적은 다소 반감되는 느낌이었지만 기대감은 높았다.

첫날의 일정은 인천공항에서 오후에 출발하여 상해 푸둥 국제공항에 현지시각으로 16:00경에 도착하여 곧바로 상해의 유명한 써커스를 관람하고 나서 박람회 전시장 인근에 위치한 호텔에 도착하여 하루를 마쳤다.



김형균

건흥축산 대표

## 육계 계열화 진행, 질병은 여전히 문제

다음날 일행은 호텔에서 도보로 이동하여 아침 9시부터 박람회를 참관할 수 있었다. 전날(7일)부터 시작된 박람회는 다소 혼잡스러웠으나 내부의 넓은 면적에 3층까지 설치된 전시장의 규모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 일행 이외에도 한국에서 관련업계의 많은 인원이 금번 박람회에 참관하고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있었다. 하루 일정이 박람회를 참관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각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을 참관하기로 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했다.

국내에서 행사도 그렇고 해외 박람회는 더욱 사전에 준비나 계획을 철저히 하고 가지 않으면 단순히 눈으로만 보고 그치는 박람회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역시 대규모의 다양한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나는 많은 벽과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의 양계산업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구나 의사소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발전의 기대와는 다르게 눈으로 감상하고 관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

기 때문이다.

다행히 일행 몇 명은 2층 한쪽에 설치된 중국의 양계협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전에 약속된 것도 아니었고 그곳에는 안내 직원만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

우리 양계협회 동행 직원의 요청과 노력으로 간신히 중국의 양계관련 잡지사의 직원과 간단한 면담이 이뤄질 수 있었다.

한국양계연구소 김영환소장님의 통역으로 이뤄진 짧은 면담에서 간단한 몇 가지만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제 중국의 양계산업도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특히 한반도의 50여배에 달한다는 광활한 면적과 14억명에 이르는 인구 등을 감안할 때 생산 및 소비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적인 기후차이에 따라 생산 사육형태도 다양하며 소규모 부업 양계부터 기업형 대규모 양계장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방이후 육계산업은 계열화 사업이 발전되고 있으나 주요질병들이 계속적으로 발생



중국을 방문한 참관단 일행 - 장가계 천자산에서(좌 첫번째 필자)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AI와 ND가 가장 큰 문제며 이와 같은 바이러스 성 질병은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들 질병에 대해서는 반드시 백신을 실시하고 있으며 애써 밝히려 하지 않았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현재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양계산업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질병인 조류인플루엔자는 현재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 각국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양계규모를 묻는 중 산란계는 총 45억 수이며 육계는 100억수 내외가 사육된다고 하였으며 물론 중국의 인구통계도 정확한지 의구심이 있는데 닭 사육 통계 또한 믿을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때 중국의 양계업도 전반적으로 기술수준은 다소 뒤져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생산규모나 능력은 무궁무진하여 비교한다는 것이 어쩌면 무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속도로 팽창,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먹거리와 양계산물의 소비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양계산업도 이처럼 거대한 중국 시장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지만 또한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는 두 가지 생각을 지을 수 없었다.

## 중국 기자재 산업 수준급 도약

박람회 전시장은 모두 3층까지 구성되어 있

었고 1층에는 각 선진국 유명업체의 기자재와 육종관련 회사들의 다양한 시스템과 제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대부분 국내 박람회에서도 자주 보았던 업체들이었다. 그리고 2층 전시장은 중국의 자국 기자재와 중요 제품위주로 전시되고 있었으며, 특히 산란계와 육계의 사육시설은 물론 축사 내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업체들도 많은 관심을 끌었고 이곳을 둘러본 소감은 중국의 시설 기자재 기술 수준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만 우리업체 일행의 이야기는 아직은 우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3층 전시장은 주로 동물약품과 사료업체, 관련첨가제 등의 업체가 전시되고 있었다. 특히 국내의 여러 동물약품제조 업체들도 전시관을 마련하고 자사제품을 홍보하고 있었다. 이들 국내 업체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한 중국 및 아시아 각국에 제품의 홍보는 물론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백신과 첨가제의 신제품을 출시하여 침체된 내수시장을 수출로서 극복하려는 전략이며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축산업과 양계산업에 발빠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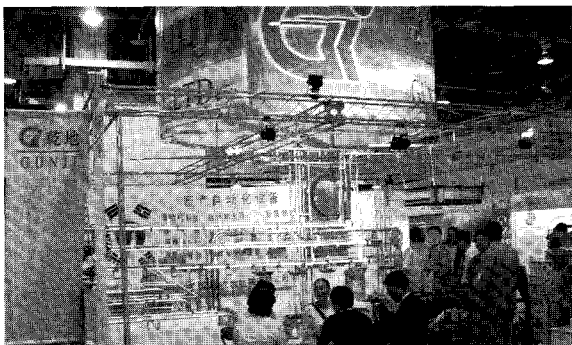
박람회장에서(좌부터 유수동 양계협회 검정팀장, 이보균 양계협회 경영지도팀장, 필자, 이종철 위드하나 대표, 곽춘욱 (주)건지 대표

적응함으로써 창출되는 무궁한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또한 감지되었다.

박람회 참관을 마치고 일행은 관광을 실시하였다. 상해에서 비행기로 2시간에 걸쳐 도착한 곳은 중국의 남쪽인 호남성에 속한 장가계였다. 인구 30여 만명의 도시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관광지이며 특히 한국인이 많이 찾는 곳으로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었다. 시내에서 버스로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국립공원으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기암괴석으로 유명한 천자산이었다. 높은 산을 케이블카로 이동하면서 살펴본 자연 경관은 정말 감탄 스러웠다.

하룽공원과 어필봉 그리고 원가계 등을 버스와 도보로 이동하면서 관광하였으며 기이한 봉오리와 암석으로 구성된 십리화랑도 모노레일을 타고 감상하였고 반 자연 반 인공 호수인 보봉호는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였으며 지하 비경인 황룡동굴 등 장가계의 2박 3일은 힘든 일정이었지만 중국의 시골상과 발전해가는 생활모습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우리는 다시 상해로 돌아와 상해지역을 둘러보았다. 인구 1,400만명의 상해는 가는 곳마다 높은 빌딩이 즐비하고 아직도 개발과 공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내에는 최신유행의



이번 박람회에 국내업체들도 대거 참석 중국시장 공략에 나섰다.

젊은이들과 여행객이 어우러져 말 그대로 국제 도시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 상해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는 동방명주탑과 황푸강을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였으며, 그리고 강 주변의 옛 건축물과 중국식 정원 등을 둘러보았고 시내의 우리나라 임시정부 청사와 루쉰공원의 윤봉길 의사의 일제에 폭탄 투척의 역사 현장 등을 둘러보면서 일제하 우리 애국지사들의 혼을 느낄 수 있었으며 오늘 우리가 비록 관광객의 일원으로 이곳을 찾고 있지만 결코 과거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짧지 않은 여행을 하면서 다소의 불편함과 진행상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한번의 여행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듯이 우리와 지척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 좀더 많은 공부와 관심을 가져 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서부지역 개발에 투자하는 외국인 특혜

중국의 경제는 전체평균 GDP는 1,000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이고 특히 서부지역의 미개척지는 과거의 중국이라고 하듯이 평균소득 500달러로 빈곤한 상태이나 상해지역의 평균은 약 5,600달러의 수준이므로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 상태인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혁과 개방으로 가고 있으며 상해는 중국의 미래라고 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자본주형 핵심도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년 평균 경제 성장률 9%이상의 고도 성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처럼 부동산투기와 도박 그리고 주식열풍으로 엄청난 부자가 생겨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상해로 몰려드는 수많은 농민과 부녀자들은 도시의 걸인이 되고 있는 등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부지역을 집중 개발하기 위해 그곳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찍부터 우리나라 주요기업들도 중국에 진출하여 현지 조립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와 핸드폰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나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재의 중국은 개방으로 변화와 개혁

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으나 엄청난 잠재력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이며 우리나라도 주변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기술 개발과 경제발전을 이뤄내 국력을 키워야만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아쉬움 속에서 금번 상해 양계박람회 여행을 마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우여곡절을 거쳐 이제 기사회생의 단계에 이르고 있지만 중국의 양계산업 또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 점과 우리나라도 양계 산업의 미래는 관련업체 모두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 성패가 결정 될 것이라는 당연한 진리와 결코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에 대한 비관보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싶다. 동행하여 고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양계**

# 생석회 ♠ 소석회

-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 축사소독 및 악취제거
- ♣ 총란 및 병원균 살균
- ♣ 유기질 분해촉진
- ♣ 산성 토양 개량(pH안정)

\*\*\*\*\*

**영월석회공업사**

사무실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250번지  
 전 화 : (033)372-5837, 5618, 팩스 : (033)372-5889  
 전 화 : (033)372-5296, 6878, 야간 : (033)372-5293